

## 콩쥐 팥쥐

때: 옛날

곳: 콩쥐네 집, 길가

나오는 사람들: 학생

해설자: 남학생. 한복 입고 갓 쓰고 장죽을 들고 있다. 두루마기를 입고 긴 수염을 달았음.

새어머니: 한복

콩쥐: 다 떨어져서 꿰매어 기운 한복  
화려한 한복

팥쥐: 한복

두꺼비: 두꺼비 머리, 초록색 T셔츠, 타이즈

황소: 2명, 황소머리 누런색 몸체 뒤에 꼬리가 달려 있다. 앞부분, 뒷부분으로 두명이 들어 간다.

참새: 갈색 T셔츠, 타이즈 양팔에 날개를 달았다.

참새들: 유치반 15명, 참새와 같은 의상

선녀들: 선녀머리, 부채, 선녀옷 3명

원님: 관복에 흉배를 붙인 것, 큰 갓

나졸장: 나졸장 옷, 모자에 구슬 꿨 것을 붙인다.

나졸들: 5명, 태권도복, 흰 머리띠

합창단: 한복 15명

무용단: 한복, 부채, 25명 총 출연자 73명

교사: 총연출, 감독, 조감독, 무대장치, 무대의상, 음향효과,  
합창지도, 무용지도

1막 1장

새어머니: (야멸차게) 콩쥐야, 너는 엄마가 아랫마을 잔치에 갔다 올 동안에 저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라. 한 독 가득 채우지 못하면 큰 일 날 줄 알아라.

콩쥐: 예

새어머니: (다정한 소리로) 팔쥐야, 너는 이 작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라.

팔쥐: 예 (새어머니 퇴장)

팔쥐: (금방 작은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다) 애, 콩쥐야, 나는 다 했다. 너는 무얼 그렇게 꾸물거리니? 나는 간다. 용용 죽겠지?

(팔쥐 팔작 팔작 뛰며 퇴장)

콩쥐: 그래, 잘 놀다와 (물을 계속 길는다.)

(한숨을 쉬면서)

아! 나는 이 큰 독에 언제 물을 다 채우나!

(물을 길어다 부으며)

응, 이게 웬일이지?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으니?

(독안을 살펴본다, 깜짝 놀라며)

어머니! 구멍 뚫린 독이구나.(엉엉운다)

(합창단 일어서며)

콩쥐 아가씨 왜 울어요.

팔쥐는 즐겁게 뛰노는데

콩쥐 아가씨, 말해 보세요.

어서 어서, 말 하세요.

두꺼비: (펄쩍 펄쩍 뛰어온다) 콩쥐야, 왜 우니?

콩쥐: (깜짝 놀라며) 어머니, 너 두꺼비 아냐?

두꺼비: 그래, 무슨 일이냐? 내가 도와줄게

콩쥐: 새어머니가 이 구멍뚫린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.

두꺼비: 콩쥐야, 걱정하지마. 내가 독 밑에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 줄게.

(두꺼비 독 뒤로 사라진다. 콩쥐는 계속 물을 길는다.)

콩쥐: (독 안을 들여다보며) 고맙다. 두꺼비야.

(새 어머니가 잔치집에서 돌아온다)

새어머니: (양갈진 목소리로) 애, 콩쥐야, 물은 다 길었니?

콩쥐: 예, 어머니, 다 길었어요.

새어머니:(신경질조로) 아니, 물을 독에 가득 채워 놓았던 말이나?

콩쥐: 예, 어머니.

새어머니:(속으로 중얼거린다)

아니, 구멍뚫린 독이었는데 --- 이상한 일도 있다.

(독안을 들여다 본다. 깜짝 놀라며)

이게 웬일이니? 물이 가득 차 있구나.

(불이 꺼진다)

## 2장

해설: 며칠후 새 어머니는 콩쥐에게 또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, 이번에는말로 콩쥐를 꼭 혼내주리라고 마음 먹었습니다.

새어머니:(집에서 나온다) 오늘은 저 얄미운 콩쥐를 실컷 때려줘야겠는데(턱을 받치고 생각을 한 다음)옳지! 알았다.(손뼉을 치며 부른다)

애들아, 콩쥐야! 팔쥐야!

콩쥐, 팔쥐: 예, 어머니 부르셨어요?

새어머니: 너희들 오늘은 밭일을 하도록 해라. 콩쥐야, 너는 이 나무호미로 저 자갈밭을 매어라. 오늘 해 지기 전에 다 끝내지 않으면 매맞을 줄 알아라, 알았지.

콩쥐: 예 어머니(나무호미를 받는다).

새어머니: (머리를 쓰다듬으면서) 팔쥐야, 우리 예쁜 팔쥐야,너는 이 쇠호미로 앞마당에 배추밭 김을 매도록 해라. 그럼 나 다녀온다.(퇴장한다)

콩쥐, 팔쥐:(머리를 숙이며) 예, 어머니 다녀오세요.

팔쥐: 나는 이 쇠호미로 요 조그만 배추밭만 매면 되는데, 콩쥐 너는 어떻게 할래? 그 나무호미로 저 큰 자갈밭을 매게 됐구나, 해해해.

(콧노래를 부르며 배추밭을 맨다)

콩쥐:(말 없이 자갈밭 김을 맨다)

팔쥐: 콩쥐야, 난 다 했다. 넌 어떻게 할래? 넌 오늘은 엄마한테 혼 날꺼야, 난 놀러간다.(뛰면서 퇴장)

콩쥐:(열심히 김을 맨다) 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겠구나.(호미가 부러진다)

아이구, 이를 어찌나, 호미가 부러졌네,큰일 났구나. (콩쥐가 너무 슬퍼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운다)

황소:(음매~ 황소 울음소리) 콩쥐 아가씨, 콩쥐 아가씨, 해가 서산에 기울었는데 쓸쓸한 밭에서 왜 울어요?

콩쥐: 이 부러진 호미로 이 큰 자갈밭을 다 매어야 해.

황소: 허허, 그게 무슨 걱정이예요. 내가 금방 해 줄테니 염려마세요. (콩쥐가 바라보는 사이에 황소가 왔다갔다 하며 금방 김을 다 맨다.)

콩쥐: (황소의 등을 쓰다듬으면서) 고맙다, 황소야. 잘 가.

(황소와 콩쥐 같이 퇴장)

(새어머니 등장하여 밭을 바라본다)

새어머니: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일이지? 아이구 머리야.

(머리를 감싸쥐고 안으로 퇴장)

### 3장

해설: 이번에는 꼭 혼을 내줘야지 하고 속으로 베프던 새 어머니는 자갈밭을 보고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. 며칠 후 새 원님이 부임하는 날 이었습니다. 콩쥐는 원님의 행차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. 르거나 새어머니는 팔쥐만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.

새어머니: 콩쥐야, 광에 있는 벼 석섬을 짚어놓고 옷감 한 필을 짜놓은 다음에 구경오너라.

콩쥐: 예.

새어머니: 우리는 가자 (새어머니와 팔쥐 퇴장)

콩쥐: (한숨을 쉬며 광에서 벼를 꺼내어 멍석 위에 펴 놓는다) 이런 일은 열 사람이 달려 들어도 다 못할 일인데---

참새: (날개를 펴리며) 콩쥐 아가씨, 콩쥐 아가씨,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?

콩쥐: 참새야, 해지기 전에 이 벼 석섬을 다 짚어 놓아야 한단다.

(합창단 일어서서 합창)

콩쥐 아가씨, 콩쥐 아가씨

그런 일은 걱정마세요, 걱정마세요.

우리 친구 참새떼가 날아와서 도우면

모두 잠깐만데 다 깔 수 있어요.

(산골짜기에 다람쥐 곡으로)

참새: 애들아. (입에다 손을 대고 부르니 많은 참새들이 날아온다)

우리가 이 벼의 껍질을 벗겨주자 (참새들이 모두 무대 이리저리로 날개를 펴리며 날아 다닌다.)

콩쥐: 벼가 하얀 쌀로 변했구나. 고맙다, 참새들아.(참새들 모두 퇴장) 이제 옷감 한 필을 짜야겠구나.

선녀들: (꽃신을 손에 들고 등장하며) 콩쥐 아가씨, 옷감은 저희가 짜 드릴테니 이 꽃신을 신고 원님의 행차나 구경가세요.

콩쥐: (감탄하며) 아! 이렇게 예쁜 꽃신을 제게 주시니 고마워요. 선녀님들 (꽃신을 신고 나간다)

(불이 꺼진다)

막이 내린다.

## 2막 1장

(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무대앞 오른 쪽에 서 있다.)

(불이 켜지면)

나졸들: (원님과 나졸들 등장하며) 물러서라, 비켜서라, 원님의 행차시다.

콩쥐: (놀라서 꽃신 한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간다 - 퇴장)

나졸장: (원님에게 꽃신을 바치며) 여기 보기드문 꽃신 한 짝이 떨어졌습니다.

원님: 허허허, 이렇게 예쁜 꽃신을 신은 아가씨라면 마음씨도 곱겠구나. 이 꽃신의 주인을 찾도록 해라.

나졸들: 예이.

3막 1장

콩쥐네 집

해설: 며칠 후 고을에는 꽃신의 주인을 찾는다는 방이 붙었습니다. 원님은 전 고을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꽃신의 주인을 찾도록 명령했습니다. 그리고 꽃신의 주인은 원님의 아내가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. 고을 안의 처녀들은 모두 다 한번씩 꽃신을 신어 보았습니다. 마침내, 콩쥐 팔쥐네 집에도 나졸들이 찾아 왔습니다.

(막이 오르며 다시 콩쥐네 집)

나졸장: 처녀들은 누구나 다 이 꽃신을 신어보시오. 원님의 명령이니 어기지 말도록 하시오.

새어머니: 아이구 팔쥐야, 이리 나오너라. 네 발에 꼭 맞을 것 같구나. 어서 신어보아라.

팔쥐:(꽃신을 신어본다. 맞지 않아서 나졸이 도로 벗긴다.)

새어머니: 다시 잘 신어보아라. 꽃신이 너무 작구나.

나졸장:(콩쥐쪽을 보며) 저 아가씨도 신겨 보श्य.

새어머니: 그럴 필요없어요.

나졸장: 안돼요. 원님의 명령이시니 어느 아가씨나 다 신어봐야 해요. 아가씨, 이리 나오시오.

새어머니: 안돼요. 그 아이는 필요 없어요.

나졸장: 애들아! 저 아가씨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.

나졸들: 예.(콩쥐를 나졸장 앞으로 데리고 온다)

나졸장: 이 꽃신을 신어보श्य.

콩쥐:(꽃신을 신어본다)

일동 모두: 아아, 신통하구나. 꼭 맞네.

(막이 내린다)

4막1장

(동헌 앞뜰 일주문이 앞에 서 있다)

해설: 꽃신의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원님과 온 고을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.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. 원님은 콩쥐로 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새어머니와 팔쥐를 잡아들였습니다.

(다시 막이 열리며 원님과 예쁜 옷을 입은 콩쥐가 의자에 앉아있고 새 어머니와 팔쥐,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있다)

원님: 여봐라! 네가 네 죄를 알겠느냐?

새어머니, 팔쥐: (두 손으로 빌며) 예예, 제발 목숨남 살려주세요.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.

콩쥐: 원님, 제 어머니입니다. 저를 보아 용서해 주세요.

원님: 내 아내를 보아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. 앞으로는 착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해라.

새어머니, 팔쥐: 예,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
원님; 이렇게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쁜 콩쥐를 내 아내로 맞이 하였으니 경사스러운 날이다. 온 고을 백성들도 기뻐하라. 자, 풍악을 울려라. 오늘 다 함께 즐겨보자.

(음악이 나오며 무용반 등장, 부채춤을 춘다. 무용이 끝나면 막이 내린다)

해설: 이렇게 하여 콩쥐와 팔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.

(막이 다시 올라가면 출연자 모두 나와서 손을 잡고 다함께 인사한다)